

나주시의회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 채택

의원 15명 중 13명 공동발의 시민 의견 반영 재검토 촉구 환경단체 반발...갈등 재점화

나주 영산강 죽산보 해체 여부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고,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보 해체를 두고 지역민과 지자체, 시의회, 환경단체 등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등 여론이 엇갈리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이 최근 제216회 5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 전체 의원 1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2명 전원과 무소속 1명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시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영산강의 주민

은 나주시민이며, 영산강의 물은 나주 농업의 생명수다"며 "시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죽산보 해체 방안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죽산보가 주변 약 250ha 농토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침체한 지역생권을 살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중인 황포돛배 물길이자 오토캠핑장 조성지라며 해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 "수천억원을 투자한 사업을 단 1년만의 모니터링으로 당장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정부의 재정운영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죽산보는 수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농업인과 영산강 수변 지역의 지역 상인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죽산보에 대한 충분한

한 모니터링과 검증이 필요하고, 무조건적인 해체를 우려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시의회가 죽산보 해체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영산강자연화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이날 오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강은 농업용수 이용 비중이 높아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를 고려한 보 해체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 처리방안에 보 해체 후 수위변화에 따른 취수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농업용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보를 해체해도 야영장과 황포돛배 운영은 환경·안전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입지와 범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보를 없애 모래톱과 습지가 풍부했던 영산강이 옛모

습을 되찾으면 지역 관광효과를 더 견인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지역민의 의견 수렴 없이 보 해체를 결정한다는 주장에도 "4대강 사업 진행 7·8년 전부터 지속적인 수질 관측을 해왔고, 보 개방 이후 모니터링과 지역민 의견수렴,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 협의의 자리를 가져왔다"고 피력했다.

시민행동은 "정부가 보 처리방안에 치중한 나머지 하구둑 문제나 지류에 대해서는 지역민·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의회는 보를 존치하기 위한 의견 수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 강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주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관 합동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죽산보 해체를 권고했다. 보 해체 여부는 이달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몇 등급?...쌀보리 수매 2019년산 쌀보리 수매가 3일 오전 광주 남구 대촌농협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촌농협은 이날 40kg 총 2575포대를 포대당 3만7000원에 수매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남·서구 공공도서관 자료 점검·리모델링 휴관

광주 일부 공공도서관이 휴관에 들어간다. 3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문화정보도서관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휴관한다. 이번 휴관은 도서관에 보관된 책 소장자료 상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남구는 도서관 어린이실과 디지털 자료실 등 시설과 7만 643권의 도서를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공공도서관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료실 노후시설 개보수 등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휴관에 들어간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공사기간 중 장소를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화물차 교통안전 대책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공단과 전남지방경찰청, 화물협회, 개별 운수회사, 운전자를 연결하는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2만여 명이다.

이밖에 대형사고 확률이 높은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속도제한 장치 임의해제 등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일반 마스크 인데... '미세먼지 차단' 허위광고·표시 무더기 적발

식약처 2개월 집중 점검 결과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는 437건이었으며, 주로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화정역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광주지사 상무대로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달뜨기 06:37
해질 19:51 달질 21:17

따가운 햇살
대부분 맑고 새벽에 안개 끼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음	20/32	보성	맑음	18/30
목포	맑음	21/28	순천	맑음	20/32
여수	맑음	21/29	영광	맑음	19/29
나주	맑음	19/32	진도	맑음	19/29
완도	맑음	20/30	전주	맑음	19/31
구례	맑음	19/32	군산	맑음	19/29
강진	맑음	19/30	남원	맑음	18/31
해남	맑음	18/30	축산도	맑음	19/26
장성	맑음	18/31			

◇ 바다 날씨

시해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서)	북~북동	0.5~1.0	북~북동	1.0~2.0

◇ 생활지수

- 관심
- 매우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33	03:21
	20:34	15:18
여수	03:59	10:01
	16:03	22:41

◇ 주간 날씨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20/32	22/32	21/31	22/30	22/31	22/28	22/28

전남대 '아시아 최고혁신 대학' 50위

거점 국립대 2위, 국내 13위

특히 전남대는 이 발표에서 특허출원 건수에 대비한 특허 성공률이 무려 87.9%로, 서울대(78.2%), 중국 칭화대(74.8%), 일본 도쿄대(52.6%) 등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 가운데는 중앙대(91.0%), 아주대(88.1%)에 이어 3위에 해당하고, 거점 국립대 가운데는 1위의 성적으로, 발표 논문들이 수량보다 질적 수준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해에는 아시아 55위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올 상반기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

광주여자대학교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한국대학평가원 '2019년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에서 '인증' (2023년까지)을 획득, 대학기관평가 수역에서 대학기관평가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교육의 질 보장과 지속적 개선, 대학의 교육성과 및 책무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 그리고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1년에 도입된 평가제도이다.

이선재 총장은 "광주여대는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돼 2019년부터 3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번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내실 있는 대학운영으로 우수한 여성리더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기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연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